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청구건, 1969년 이래 가장 낮아

[미국 금융]
- WSJ: 중동 전쟁으로 미 국채 고금리에 금리 인상 가능성
- JP 모건: 2026년 이후의 6가지(6 Ds) 변화 추세는?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트럼프 “이란에 후티 반군 공격 책임을 묻겠다”

[오일]
- Bloomberg: 홍해 후티 반군 공격에 오일가 1백불 돌파
- WSJ: 오일 가격 상승 이유…우회로 운항 기간 길어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미 임시 보편관세 대신에 301조 관세로 바뀐다
- Politico: 트럼프 관세 조치들, 유권자와 동맹국 우려 키운다”

[미중 관계]
- Bloomberg: 미 의원들 “미 정부는 대 중국 기술 규제 확실히 하라”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현대자동차, 2분기 실적 예상 밑돌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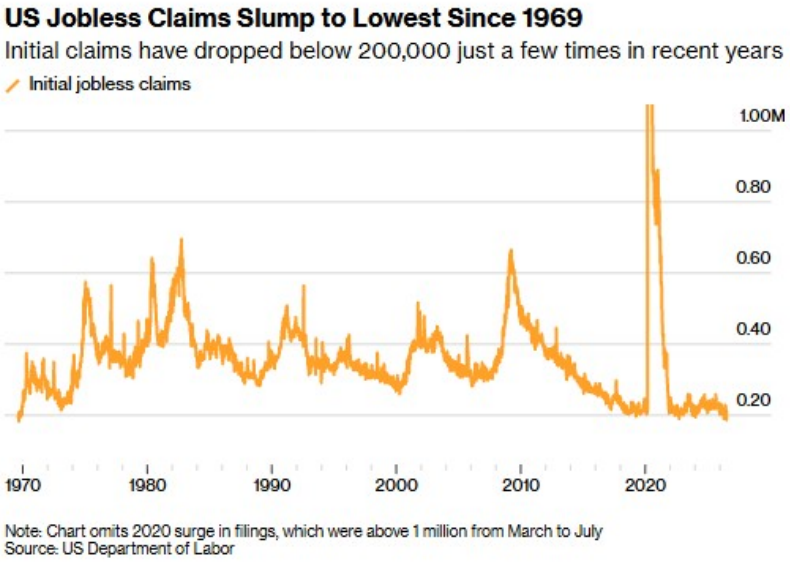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to Lowest Level Since 1969
미 신규 실업청구건, 1969년 이래 가장 낮아

-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, 안정적인 고용 시장 속에서 감원 바람도 둔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.
- 연방노동부가 오늘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7월 18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2천건 줄어든 18만 7천건을 기록했다. 이는 전문가 예상치 21만 건을 밑도는 수치다.
-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최근 수년간 단 몇 차례에 불과했다. 진행중인 전체 실업 건수는 1백80만건으로 별 변동이 없다.

기사



[미국 금융]

WSJ: What Surging Bond Yields Mean for Consumers and Markets
중동 전쟁으로 미 국채 고금리에 금리 인상 가능성

- 미국과 이란 간의 공격이 재발하면서 미 국채 매도세가 이어졌고,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026년 최고치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.
- 반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함에 따라,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.
- 이처럼 상승하는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편,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꺾고 있다.



기사

JP 모건: The Great Unwind: Six Ds shaping the outlook beyond 2026
2026년 이후의 6가지(6 Ds) 변화 추세는?

아래 6가지 동향으로 바뀌면서 고금리·고위험 프리미엄·높은 시장 변동성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.

- 미 재정 적자 (Deficits): 산업 정책 비용 증가와 고금리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 부채 안정이 불가능해졌고,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과 기간 프리미엄(Term Premium, 장기 보유 위험 대가)도 커지는 추세다.
- 무역과 원자재 흐름이 갈수록 무기화되고 산업 정책이 정착되는 가운데, 2025년 기준 예산 안팎의 지원을 합친 미국 산업 정책의 재정 규모는 약 1조 달러(GDP의 약 6%)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.
- 규제 완화 (Deregulation): 재정적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의 우위를 지켜줄 친성장 동력이다. 미국 내 규제 완화 흐름은 금융, 에너지, 반독점 등 전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.
- 탈탄소화 (De-carbonization): 에너지 안보 우려 증대와 청정 기술 비용 하락 속에 탈탄소화 흐름이 탄력을 받고 있다. 이란 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전력망 현대화 등 청정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유연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.
- 인구 감소 (De-population): 인구 감소와 이민 축소의 여파가 저평가되어 있으며,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다. 선진국 전체의 생산연령인구는 2024년에 고점을 찍었으며, 21세기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.
- 탈세계화 (De-globalization)" : 세계화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는 중이며, 미국의 수요와 '차이나+1' 전략이 새로운 무역 수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.
- 완전한 탈세계화의 징후는 드물지만, 무역 정책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.
- 탈달러화 (De-dollarization): 변화는 완만하지만, 중국을 필두로 독자적인 결제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. 달러의 위상이 실제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Trump Threatens More Attacks on Iran After Houthis Join War
트럼프 "후티 반군 공격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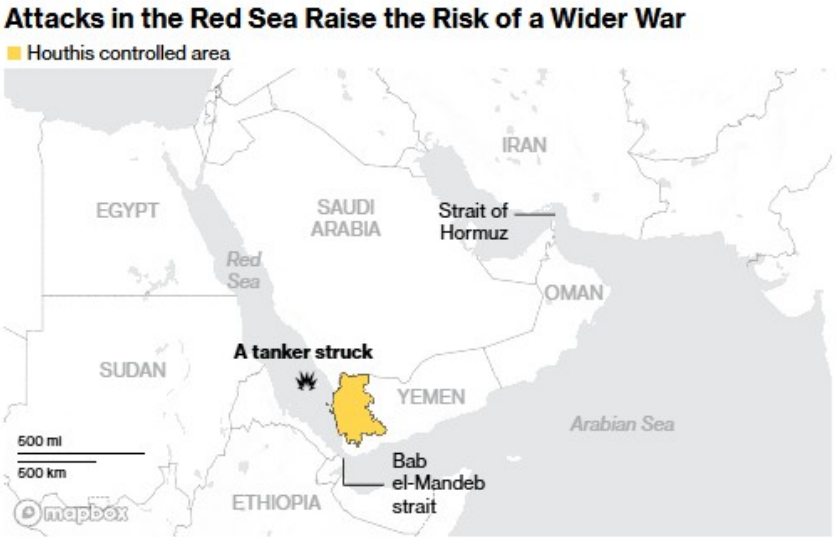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는 예멘 거점의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추가로 공격할 경우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고 밝혔다.
-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. 이는 수개월 만에 재개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, 미·이란 갈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
- 이 같은 상황은 유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여,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오늘 목요일 6%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Tops $100 as Houthi Attacks in Red Sea Amplify Supply Risks
홍해 후티 반군 공격에 오일가 1백불 돌파

-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. 중동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.
- 이번 공격으로 수개월간 이어진 해당 지역 내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. 이미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막힌 상황에서, 홍해마저 공격 대상이 되자 사우디가 원유 수송을 위해 이용하던 핵심 우회로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달 들어 30% 이상 폭등하며 지난 5월 말 이후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, 일부 분석가들은 교전이 지속될 경우 연내 세 자릿수 유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.



Sources: UK Maritime Trade Operations, ACAPS / Humanitarian Data Exchange

기사

WSJ: The Map That Shows Why Oil Prices Are Surging
오일 가격 상승 이유…우회로 운항 기간 길어

-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(Bab al-Mandeb)협이 막히면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대대적인 우회로를 택해야 해 운항 기간이 10~15일 더 늘어난다.
- 게다가 가장 큰 대형 유조선들은 선체가 깊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화물을 일부만 실어 운항할 수밖에 없다.
- 결국 수송 효율이 떨어지고 선복량이 부족해지면서 아시아 정유사들의 운송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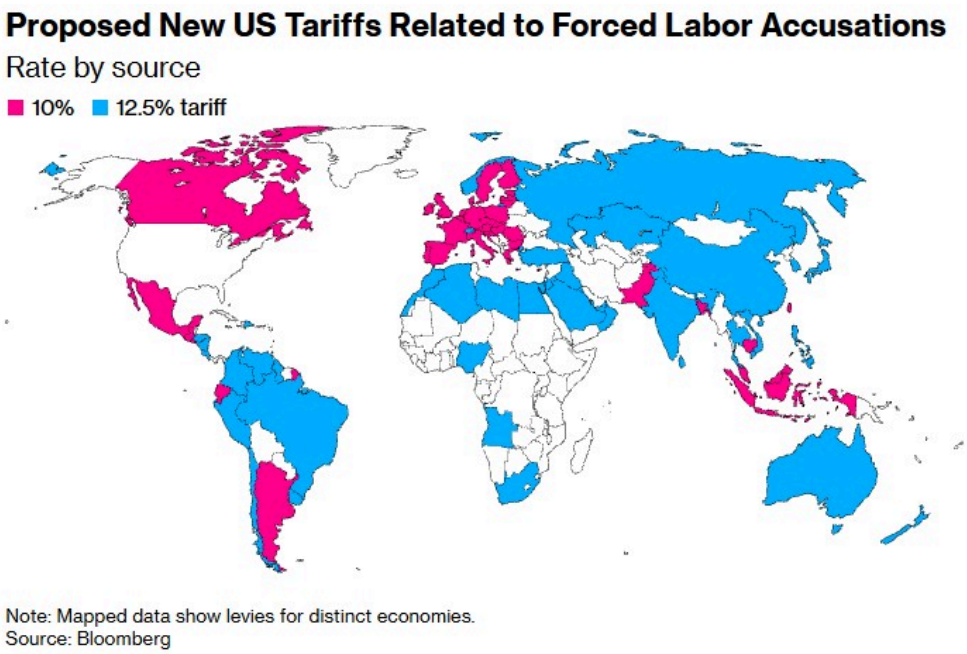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How Trump Plans to Maintain His Tariff Wall
미 임시 보편관세 대신에 301조 관세로 바뀐다

- '강제 노동' 구실로 60개국에 10~12.5% 대체 관세: 미 수입의 99.4%를 차지하는 60개국에 강제 노동 단속 미비를 이유로 10~12.5%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. 다만 따로 협정 맺은 목과 전자제품 등이 제외되어 전체 실효 관세율은 현행(10.7%)에서 0.5%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.
- 한국 등 16개 대상 '과잉 생산' 조사… 추가 관세 예고: 추가로 국, 일본, 대만, EU 등을 대상으로 '제조업 과잉 생산' 조사를 진행 중이다. 정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'추가 폭탄 관세'가 단행될 예정이다.
- 의약품 등 품목별 고율 관세 대폭 확대: 7월 31일부터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% 관세를 부과하되, 약가 인하에 합의한 대형 제약사는 제외한다. 아울러 트럼프는 2028년부터 복제약에도 100% 관세를 부과하고 익년 200%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.



기사

Politoco: 'We're getting into an ugly phase': Trump's new tariffs are angering voters and US allies alike
"트럼프 관세 조치들, 유권자와 동맹국 우려 키운다"

- 트럼프가 캐나다산 제품(50%)과 복제약(100%)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을 재개하자,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와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 공화당 진영에서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불만이 유권자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. 미 행정부는 이번 관세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해외로 나간 약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 압박용 수단으로 보고 있다. 그러나 유권자들에게는 생활 물가를 올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.
- 다른 추가 관세 움직임으로 국들 역시 미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에 강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.

기사

[미중 관계]

Bloomberg: Lawmakers Worry Trump's Team Isn't Closing China Chip Curbs Gap They Created
미 의원들 "미 정부는 대 중국 기술 규제 확실히 하라"

- 미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 기술 규제에 헛점이 생겼다며, 이를 즉각 해결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.
- 이들은 중국 기업들이 중개업체를 활용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여전히 우회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-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 원의원 등 주요 의원들은 이러한 우회로 때문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입수를 막으려던 국가 안보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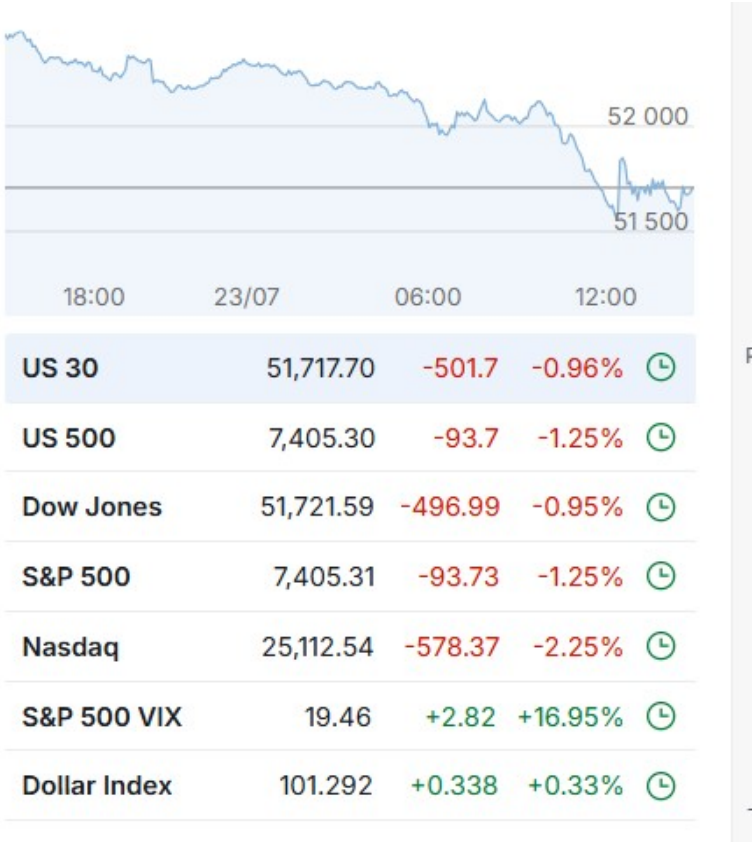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Hyundai Motor Profit Tumbles as Sales Slump in China, Europe
현대자동차, 2분기 실적 예상 밑돌아

-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감소 여파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였다.
- 올해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% 감소한 2조 8,500억 원에 그친 반면, 매출은 약 2% 증가한 49조 2,000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.
- 글로벌 소매 판매는 유럽과 중국에서의 부진으로 4.2% 줄었다. 다만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는 판매가 늘었으며, 전체 글로벌 판매의 약 27%를 차지한 하이브리드차가 효자 노릇을 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3/32	5.173	0.020
10-Year Note	4.375	-3/32	4.702	0.034
7-Year Note	4.25	-3/32	4.577	0.049
5-Year Note	4.125	-2/32	4.459	0.044
3-Year Note	4.125	-1/32	4.395	0.050
2-Year Note	4.125	-1/32	4.362	0.060
1-Year Bill	0	1/32	4.133	0.032
6-Month Bill	0	1/32	4.044	0.026
3-Month Bill	0	1/32	3.879	0.035
1-Month Bill	0	2/32	3.766	0.056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474.80	1,677.51	900.31	217.63	1.1410	101.48
-4.20 (0.28%)	-9.44 (0.56%)	-6.27 (0.69%)	-0.69 (0.32%)	0.00 (0.11%)	+0.35 (0.35%)
7. 24. 01:02 ● 실시간	7. 24. 01:02 ● 실시간	7. 24. 01:02 ● 실시간	7. 24. 01:02 ● 실시간	7. 22.	7. 23. 11:53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474.60
1,474.6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